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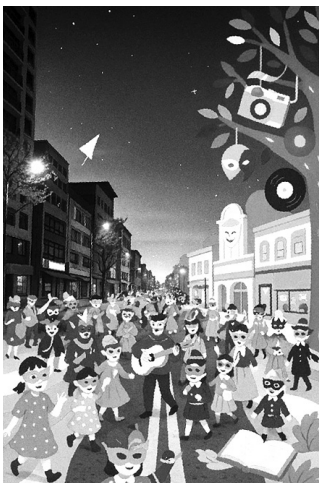
올 충장축제는 ‘동화같은 추억 이야기’로 채운다

동구, 10월 15~19일 금남로·충장로 일대
미디어 아트·퍼레이드·파이어 드론쇼 등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글로벌 버스킹 경연

광주시 동구 거리가 오는 10월 ‘추억의 동화’ 무대로 변신한다.
동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의 동화’, ‘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024년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세계 축제도시(World Festival & Event City)’로 지정된 동구는 이를 토대로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및 글로벌 버스킹 경연 등을 통해 세계와 함께하는 거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일인 15일에는 금남로 메인무대에서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와 공연이 결합된 개막쇼 ‘추억의 동화’가 펼쳐진다. ‘사랑’, ‘모험’, ‘상상’, ‘소망’ 등 동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서사형 공연이 구성될 예정이다.
16일은 ‘아시아문화의 날’로 정하고, 광주와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 8개국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

통공연, 의상 체험, 공예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 컬처 스트리트’와 ‘아시아 컬처 쇼’가 진행된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콘텐츠도 다양하다. 17일 ‘가족의 날’ 행사에는 어린이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충장 병아리 축제(가제)’를 비롯해 청소년 버스킹 경연, ‘마스크 파티’ 충장 발광나이트 등이 열린다.
‘행진의 날’인 18-19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 행사가 열려 각 자치구의 대동놀이, 초대형 바둑대회, 이색 자전거 레이싱 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된다. 18일 오후 7시부터는 금남로 일대에서 LED차량과 퍼포먼스로 구성된 ‘라이트 업 충장’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퍼레이드 종료 직후 5-18민주광장에서 대형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다.
또 19일 오후 7시부터는 주민 참여형 콘텐츠로 기획된 ‘추억의 동화 대행진’이 열려 13개 행정동



주민들이 직접 꾸민 동화 속 장면 퍼포먼스가 금남로 4가부터 ACC어린이문화원 상상마당까지 918여m의 거리를 누빌 계획이다.
퍼레이드에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안무와 연출을 도울 예정이며, 불과 드론을 융합한 특별한 파이어 드론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축제와 동시에 ACC 하늘마당 5·18민주광장 일원에서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열린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총 16개국 32팀이 참여해 경연을 펼치며, 시민 참여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음원 유통, 프로필 영상 제작, 국내외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부대행사로도 시민들이 직접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버스킹 마켓’과 ‘악기마당’, 자유공연 프로그램 ‘버스커 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21년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장해 온 충장축제가 ‘추억의 동화’라는 새로운 주제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10월, 동화속 한 장면처럼 펼쳐질 특별한 축제에 광주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구는 향후 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 공연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통기타&국악 살롱’ 공연 시작해요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 1호… 분기별 한차례 무대

광주시 남구 사직동에 북고풍 문화예술 공간 ‘살롱 드 사직’ 1호 살롱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 남구는 최근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의 1호 결과물인 ‘통기타&국악 살롱’을 남구 사직동에서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 살롱은 사직맨션 인근의 빈집을 새롭게 꾸며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음악적 요소에 특화돼 있어 분기에 한차례 이상씩 국악과 통기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살롱 안에서는 광주 지역 토속 음식과 손수 제조한 전통주도 즐길 수 있다.
남구는 청년 살롱과 아날로그 사진관, 수장고, 갤러리 살롱도 연내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갤러리 살롱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

링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아날로그 사진관과 각종 기록물 등을 모아 놓을 수장고도 이달 중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자 모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문을 열 예정이다.
인문학 살롱인 녹성상회는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조성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인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사직동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음악과 인문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살롱이 문을 열면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사직동 관광 명소화 뿐만 아니라 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안전한 귀갓길 …북구, ‘여성안심 지킴이집’ 확대 운영

편의점·카페 등 40곳 신규 지정
현판·홈카메라·SOS버튼 등 설치

광주시 북구가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한 ‘여성안심 지킴이집’을 확대 운영한다.
북구는 올해 북부경찰서의 추천 및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여성안심 지킴이집’ 40곳을 새로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안심 지킴이집’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가게를 대피처로 지정

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북구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며 ‘여성안심 지킴이집’ 20개소를 지정해 왔다.
여성안심 지킴이집은 피해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돼 경찰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위급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인근에 위치한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대피하면, 상점 주인 또는 관리자가 대피자를 보호하고 경찰과 연결된 ‘호신용 SOS 버튼’을 통해 신고 처리까지 이어진다.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가게는 여성안심 지킴이집 현판 설치, 홈 카메라 설치, 호신용 SOS 버튼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북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여성안심 지킴이집은 주민들에게 익숙한 가게를 대피처로 활용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경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여성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장애인도 함께…서구,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서비스

광주시 서구가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구는 서구 평생교육 브랜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큰대)’의 대표 프로그램인 ‘런투유’를 장애인을 위한 강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런투유는 강사가 직접 학습자에게 찾아가 문화예술, 인문학, 취미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기존 런투유 프로그램을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 30명을 선발해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 5인 이상으로 운영되던 학습모임을 3인 이상으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전자우편(lifelong80@korea.kr)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행복교육과(062-360-7095)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런투유는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서비스”라며 “학습 대상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산구,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11월28일까지 19~39세까지 미취업 청년 대상

광주시 광산구가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오는 11월 28일까지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총 300명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다.
국가기술·어학·한국사 100명, 운전면허 2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540종, 어학시험 1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이다. 광산구는 올해는 국가기술자격증 540종을 추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신청 방법은 광산구 시민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imin2@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또는 시민경제과청년활력팀(062-960-3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지원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